



우리는 개혁·개방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발전을 이루었고 생산력에서 생산관계까지 그리고 기초에서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란 국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또 인민들의 높은 물질적 욕구와 낮은 생산력 사이의 모순도 변하지 않았다.

과학적 발전관의 우선 명제는 발전이고, 핵심은 인본주의다. 전면적, 균형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방법은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려면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구축해야 하며,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

## [다]

얼마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떤 교수님을 추모하기 위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평생 공부에만 전념한 분이라 업적이 많은 줄은 알고 있었으나 삼십 권이 넘는 저서와 이백 편이나 되는 논문의 목록을 보고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몇 년간의 연구계획을 세워두고 논문을 쓰던 중 병원에서 되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부음을 받고 영안실에 갔을 때나 장지에 갔을 때 문상객들은 거의가 안면이 있는 학과 선후배들과 관련학계의 학자들 뿐 낯선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분의 친지들이 별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절이나 길흉사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로 인식되는 우리 풍속에서 그분이 그런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동안 자연 친지들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친척들은 그 마지막 가는 길에도 오지 않은 듯했다. 남들처럼 가족들과 즐겁게 생활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친척이나 친구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쌓는 대신 휴일도 없이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 참여하는 데 시간을 모두 쏟아 넣었을 것이다.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거만하다고 비난하거나 인간노릇은 못하면서 공부는 해서 무얼하느냐고 쑥덕거렸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많은 연구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건강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환갑도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분의 외로운 일생을 생각할 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일처럼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하기가 십상인 평범한 우리가 혹 시간을 너무 함부로 쉽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고 말한다. 정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무엇으로 인하여 바쁘지를 돌아보자. 한 기업인은 자신은 일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라고 말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쉽게 편하게 즐겁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저축은 해서 뭘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러나 오늘이 인생의 전부다 아니다. 인생은 내일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힘겨운 마라톤이다. 이것이 바로 굳이 힘들게 사는 방법을 택한 그 교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운 한편으로 감동을 주는 까닭일 것이다.

### <문제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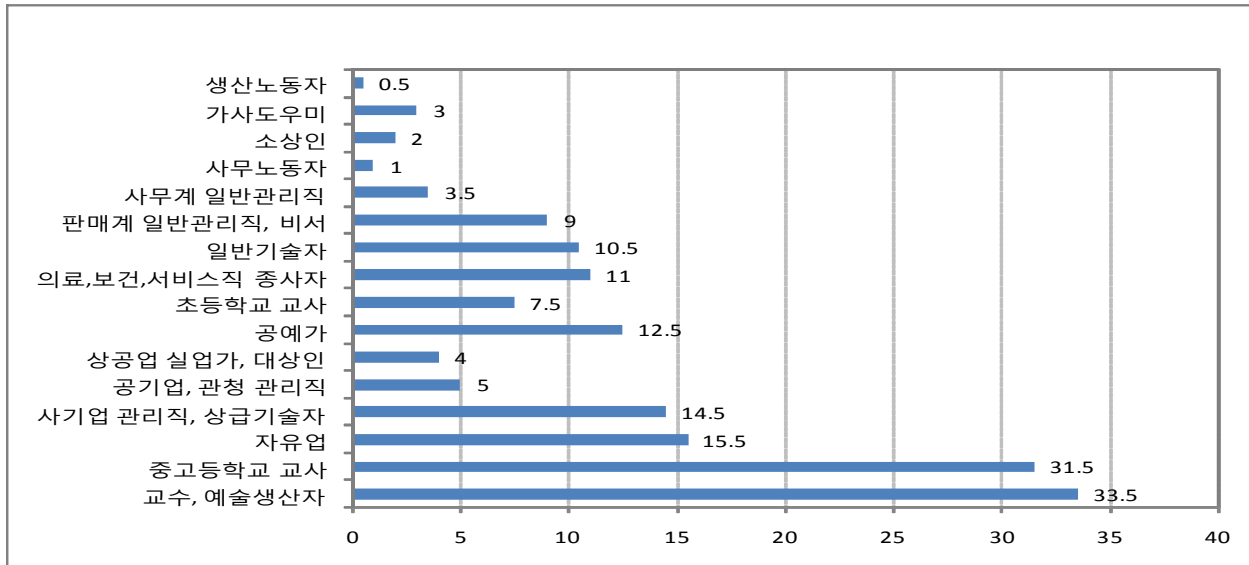
제시문 <가>와 <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회가 당면할 수 있는 고민을 담고 있다. 각각의 제시문이 우선시 하는 가치를 논하시오.(301자 이상~400자 이하: 20점)

### <문제 I-2>

국가정책의 결정이나 개인의 인생사에서 나오는 선택들은 모두 기회비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의 주장을 따르는 정책과 <다>의 주장을 따르는 선택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논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30점)

<문제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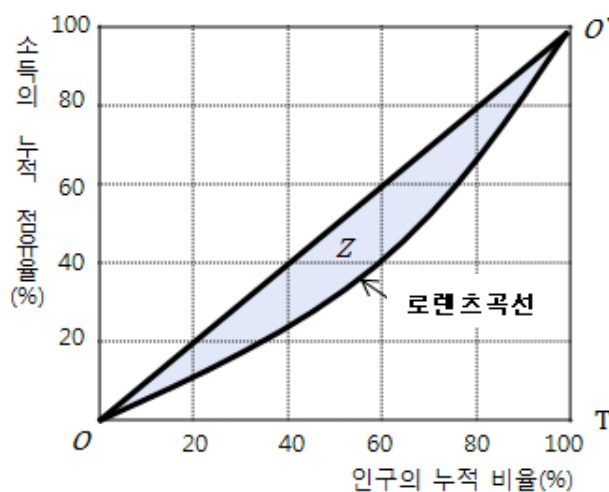
<그림 1> 바하의 「피아노 평균률」 작품에 대한 계층 분과별 선호도

[B]

구분	응답내용						계	평균
	없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전체	32.70	8.20	11.20	8.40	39.50	100	4.88	
도시 규모	대도시	29.40	7.60	11.30	9.70	42	100	5.12
	중소도시	32.40	8.40	11.40	7.20	40.70	100	5.10
	군지역	51.10	10.80	9.70	7	21.40	100	2.63
학 력	중졸이하	58.80	8.90	9.70	5.10	17.50	100	2.03
	고졸	37.10	10.10	13.40	9.40	29.90	100	3.45
	대졸이상	13.20	5.80	9.80	9.30	61.90	100	7.96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0.70	6.30	5.60	2.60	4.80	100	0.55
	100-200 만원	51.70	9.40	11.10	6.50	21.30	100	2.74
	200-300 만원	29.50	9	13.90	9.50	38.10	100	4.44
	300-400 만원	20.60	8.70	11.30	9.80	49.60	100	6.11
	400만원 이상	19.40	5.50	8.40	8.30	58.40	100	7.64

<표 1> 예술행사 연간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C] 어떤 사회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데 흔히 사용되는 수단으로 로렌츠 곡선이 있다. 정사각형의 가로축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한 비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가로축의 20%에 해당하는 점에서 로렌츠 곡선의 세로 좌표를 읽으면, 소득의 크기가 하위 20%인 사람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다. 로렌츠곡선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로렌츠곡선에서 불균등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그늘진 면적 Z가 넓어진다. 그리고 Z 면적을 삼각형 OTO'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지니계수라고 한다 .



<그림 2> 로렌츠 곡선

<문제 II-1>

제시문[A]와 [B]의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논술하시오. (701자 이상~800자 이하: 30점)

<문제 II-2>

제시문[C]에 있는 로렌츠곡선을  $(X, Y)$  좌표평면에 표시하니  $(0, 1)$ 에 중심이 있고  $(0, 0)$ 과  $(1, 1)$ 을 지나는 원과 같았다. 이러한 경우에 지니계수를 구하는 풀이과정을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소득분배의 균등 정도를 평가하시오(101자 이상~200자 이하: 20점)

<끝>